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깡”…31일 인문축제 개막

광주 동구가 5월 31일부터 이틀간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는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숲이라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인문학적 성찰을 꾀하는 독창적인 콘셉트로 지역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꽃 핀 쪽으로 뽀짝, 희망으로 뽀깡”이라는 뜻뜻하고 희망찬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축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구(Earth)’다.

극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논의를 펼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슬로건 중 ‘꽃 핀 쪽으로’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마지막 장의 소제목에서 따왔고, ‘희망’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 변함없이 함께 나

중심사 일원서 ‘인문For:rest’ 한강 작가 관련 다양한 특별전 기후·환경관한 인문 프로그램

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가 ‘지구’인 만큼, 이번 축제에는 무등산국립공원을 비롯해 광주전남녹색연합, 친환경경자원순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기후환경비건네트워크 등 지역 내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채롭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의 대표 핵심 프로그램은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한강 작가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된다.

한강 작가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이루어진 특별 전시 ‘한강의 숲에서’를 통해 작가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조망한다.



특히 일본 독자 60여명을 초청해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공간들을 함께 돌아보고 한국 독자들과 교류하는 특별한 문학 기행 프

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인 깊이 있는 고민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무등산 편백 숲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들을 찾아 나서는 생물 다양성 대탐사 ‘생명을 기록하다’와 ‘쓰레기 피아노 아저씨’로 알려진 작곡가 이승규와 함께 폐자원을 활용한 음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특별한 공연 ‘업 사이클 뮤직’이 진행된다.

또한 무등산의 소중한 야생 동물과 멸종 위기 종들을 주민들과 함께 작품으로 만들어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무등산 동물님들’ 등을 통해 축제를 찾는 주민들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저명한 소설가 김탁환과 독창적인 설치 미술가 최병수를 초청하여 깊이 있는 인문학적 대화를 나누는 ‘인문 토크 콘서트’, 푸르른 무등산 편백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

음의 휴식을 취하는 ‘숲명 소풍’,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인문 사유 정원’, 동구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도서를 지역 청년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청년 문학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인문 도시 광주 동구’가 걸여온 의미 있는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와 다채로운 팝업 부스도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나왔던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인문학적 가치를 되돌아보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다”며 “극심한 기후 위기로 인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까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한 이번 축제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서구 ‘청년내일저축계좌’ 21일까지 신규 모집

행정복지센터·‘복지로’서 접수

광주 서구가 3년간 매달 10만원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매칭 지원 방식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현

재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청년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월 1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연령 조건 또한 만 15세부터 39세까지로 확대된다.

가입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2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민 기자

남구, 지역밀착형 ‘히어로 복지관’ 출범

광주 남구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히어로 복지관’ 사업을 선보인다.

남구는 30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히어로 복지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병내 구청장과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외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히어로(hero) 복지관 사업이 참석자 사이에서 큰 반향과 관심을 모았다.

첫걸음을 내디딘 히어로 복지관은 민·관 복지 플랫폼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사회안전망 장치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동네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역에는 월산4동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양림동, 봉선2동에 각각 양지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애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 잡

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동네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재로 인해 시설 이용에 물리적 한계가 따르는 14개동 주민들을 위해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각각의 담당관역을 부여해 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종합사회복지관별 주요 특화 사업으로는 어르신 영양식 지원과 은둔형 청년 고립가구 지원, 달빛 어린 마을 지원,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자립 지원, 1·3세대 교류 프로그램 사업 등이 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에는복지관이 위치한 장소들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서 “히어로 복지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북구 ‘보행자 우선도로’ 특교세 1억5000만원 확보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재난안전관리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북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7월 법제화한 제도이다.

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고 일반도로와 차별화를 위한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안내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 및 행동 개선을 유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북구는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 1억 5,000만원

에 구비 5,000만원을 더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설죽로 202번길)에 약 470m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상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하루 1만 7,000여명의 유동 인구가 있을 만큼 보행량이 많다.

하지만 도로의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북구는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점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고시, 주민설명회, 사업 실시 설계 등 절차를 거쳐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30일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제37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7개 대도시 중심구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창의적인 우수사례와 중심구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환경·인구 등 공통 현안 문제에 대해 상호공유·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서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도시·환경·인구 현안 공유 등

광주 동구는 30일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제37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37차 회의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7대 대도시 중심구의 창의적인 우수사례와 중심구에서 직면한 도시·환경·인구 등 공통 문제에 대해 상호공유 및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대도시 중심구의 우수 행정사

례를 살펴보고, 공동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 동구는 원도심의 슬럼화를 막고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 집수리 특화사업’을 제안했고, 7개 중심구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도심 집수리 특화사업’은 특정 구역에 한정돼 추진되던 기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전체를 ‘집수리 특화 구역’으로 지정, 광범위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광주 동구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개입 사업 △서울 중구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구축 △부산 중구 전국 최초 빈집 중개 플랫폼

구축 △대구 중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음식물 감량사업 추진 △인천 중구 인천공항 주차 네비게이션 사업 △대전 중구 재난 대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대도시 중심구 단체장들과 현안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1996년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연 이후 중심구의 공동 현안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수민 기자

광산구 ‘내집앞 맨발길’ 정비…시민 의견 반영

광주 광산구가 ‘내집앞 맨발길’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면적이 넓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내집앞 맨발길’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공원, 녹지, 등산로를 중심으로 흙, 땅의 감촉을 직접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맨발길 36개소를 조성했다.

광산구는 최근 시민의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맨발길 전체를 점검·정비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말미산에 조성된 내집앞 맨발길. 광주 광산구 제공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면 사항, 개선건의 등 의견을 수렴해 맨발길 주변 이물질 제

거, 노면 고르기, 흙 보충, 세죽장 퇴적물 청소 등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맨발길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 지침과 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맨발길에 빗자루를 비치하고, 이용률이 높은 곳은 흙 보관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맨발길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며 “길을 이용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비 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관리 참여를 높이기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주민 건의에 따라 내집앞 맨발길 조성 목표를 32개소에서 40개로 늘려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영봉 기자